

2024년 경기문화예술교육 2차 통합공모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 공모 심의총평

유아라는 세계를 만나는 현장이 아이들의 '있는 그대로'의 상태보다는 뭔가를 '더' 알려주기 위해 애쓰는 방향으로 편중된 관점에 대한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유아기에만 느낄 수 있는 감각과 세상에 대한 지극히 개인적인 취향이 불러올 오해와 모순 그리고 무질서함의 지속이 아니라 어서 빨리 커서 건너뛰기를 바라는 많은 프로그램으로 읽히기 때문입니다. 과연, 우리가 준비하고 생각하는 예술과 교육이 해소와 발산 보다는 축적과 질서라는 체계로 설명되어야 하는지 한번 의심해 볼 시대가 되지 않았을까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외 개별적 프로그램들은 일반화된 형식들을 벤치마킹하듯이 패턴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예술가 단체의 독립성과 고유성이 묻어나지 않는 현상도 두드러졌습니다. 안전함, 즉 보편성의 함정에 빠져버린 시대적 유행에 거리를 두는 실험적 연구 기획안이 보다 더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마침.

2024. 5. 29.

심의위원 임상빈, 김태연, 최선영, 최창섭